



# 미국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준비 현황

한주희 (미국 매사추세츠주립대학교 애머스트캠퍼스 사회학 박사과정)

## ■ 머리말

미국 인구조사국의 추산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을 맞이 시작하면서 203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5년 대비 최대 50% 더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직장기반 퇴직연금 가입자 수는 감소하는 대신 개인퇴직연금에 의존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 기대수명도 늘어나고 있고 사회보장연금의 장기적 재정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들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준비 현황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현재 미국 민주당 내 대선 후보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를 통해 미국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에 퇴직자 및 퇴직예정 근로자들의 재정상황 및 은퇴준비 수준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요청해, 지난 5월 이 보고서<sup>1)</sup>가 정식으로 발표되었다. 여기서는 이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이 보고서는 연방준비은행의 2013년도 소비자금융조사(Survey of Consumer Finances), 관련학계 저널, 전문가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한다.

1)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2015), *Retirement Security: Most Households Approaching Retirement Have Low Savings*. 전체 보고서는 <http://www.gao.gov/assets/680/670153.pdf>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 퇴직자의 주 수입원

###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s)

사회보장연금은 퇴직자, 그 배우자, 유가족, 장애를 갖게 된 근로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2012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86%가 사회보장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회보장연금을 적용받는 일자리에 근로하는 동안 자격기준에 맞는 근로자들이 사회보장세금(Social Security Tax)을 내는 것으로 재원이 충당되며, 미국 근로자들의 96% 정도가 이 사회보장세를 내고 있다고 추산된다. 근로자들은 62세(또는 장애 판정을 받게 된 시점)부터 이 사회보장연금 수령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70세까지는 수령을 늦출수록 월 지급액이 증가한다. 월 지급액은 근로자의 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누진세가 적용되어 사회보장연금이 퇴직 전 임금 대비 대체 비율이 고임금 근로자들에 비해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더 높게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사회보장연금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우선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되며, 둘째로 그 지급액은 매년 생활물가를 반영해 인상된다. 2014년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이 사회보장연금의 재원인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OASI) 트러스트 펀드는 2034년부터 부족해지기 시작해서, 그 이후부터는 수급자들에게 원래 지급하기로 했던 금액의 75% 수준만 지급 가능한 수준의 재원만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2034년 이전에 사회보장연금제도 또는 재원 마련과 관련한 세제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 직장기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Employment-based Defined Benefit(DB))

전통적 방식인 회사 퇴직연금으로 월급과 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지급액이 미리 결정되는 연금을 의미한다. 일부는 퇴직 이후 특정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망 시까지 매달 연금을 지급한다. 매월 지급되는 회사 퇴직연금은 은퇴자들 자신의 자산을 소진할 위험 등 여러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하며, 연금 종류에 따라 유족에게도 연금이 지급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연금을 지급하는 회사(전 고용주)가 지급

을 유예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위험성도 존재한다. 민간기업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재원 고갈로 인해 약속된 연금을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연방정부기관인 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PBGC)가 회사를 대신하여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연방법이 정하는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수급자가 기존에 받던 연금보다 축소된 금액을 수급하게 될 수도 있다.

## 개인퇴직계좌(Retirement Savings,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약 30년 전에 새롭게 도입된 방식으로 현재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하나는 401(K) 연금처럼 직장에서 제공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다른 하나는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이다. 이들 프로그램의 재원은 근로자 개인(때로는 고용주도 일부를 부담)이 적립한 예금과 이의 투자수익으로 마련된다. 고용주가 지원하는 퇴직연금제도의 예는 401(k), 403(b) 연금과 같은 것으로, 고용주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를 떼어 예금을 하거나, 이에 더해 고용주도 예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개인퇴직계좌는 근로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하는 방식이며 앞서 언급한 고용주가 지원하는 퇴직연금제도와 무관하게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는 세제 혜택, 예금의 이동성, 적립액의 투명성 등 장점이 있다. 그러나 퇴직 후에도 연금이 바닥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과 퇴직연금의 가입 및 유지 관리의 모든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는 한계도 있다.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는 근로자들과 고용주들에게는 보통 연방세 혜택이 주어지는데, 적립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줄여주거나, 예금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세금 납부를 연기해준다. 퇴직계좌 적립금에 대한 면세 또는 감세 규모는 미국 전체로 보면 상당히 큰 규모로, 연방정부 예산의 가장 큰 지출 항목 가운데 하나이다. 2012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면세와 감세로 정부가 거두어들이지 못한 세금 총액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518억 달러, 개인퇴직계좌(IRA)에서 162억 달러로 추산되었다.

직장기반 퇴직연금제도는 특히 민간부문에서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연금에서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연금으로 바뀌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12년 민간부문에서 확정급여형 연금 가입자는 4천만 명 수준인 데 비해 확정기여형 연금 가입자는 약 9천1백만 명 수준인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에 비해 1975년에는 민간부문 연금 가입자 가운데 75%는

확정급여형 연금에 가입되어 있었고, 1990년에는 그 비율이 줄어 50%가 확정급여형 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다. 연방준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사분기 기준으로 확정급여형 연금 총 자산은 11.2조 달러, 개인퇴직계좌에 적립된 총자산은 7.3조 달러, 확정기여형 연금 총자산은 6.2조 달러로 추산된다.

## 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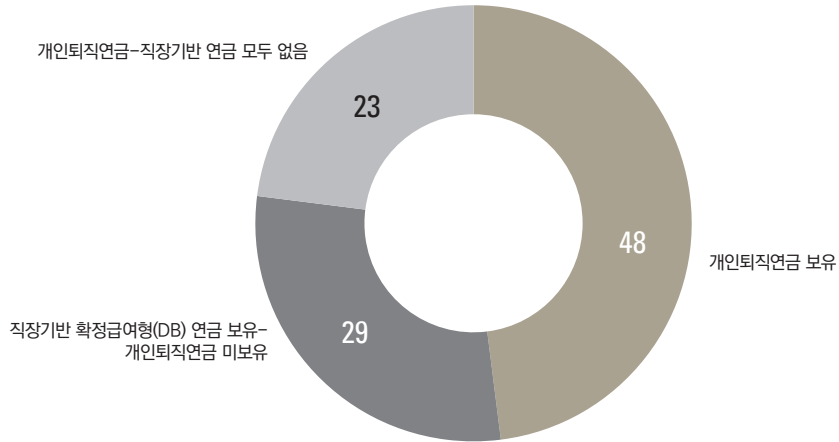
이 외에도 퇴직자들은 기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기타 수입원이 있다. 은퇴자들은 또한 자신의 주택을 매각하거나 역(逆) 모기지(주택연금: reverse mortgage) 등 방식을 통해 주택자산으로부터 돈을 마련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경제학자들이 기본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또 한 가지 방식은 귀속임대료(imputed rent)로 자신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시장에 월세를 준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월세이다. 또한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한 명이 65세 이상으로 은퇴를 했으나 배우자가 62세 미만으로 아직 사회보장연금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한 가구들에서는 근로소득이 중요한 수입원일 수 있다.

## ■ 55세 이상 노령가구 은퇴준비 현황

2013년 소비자금융조사에 따르면(그림 1 참조), 퇴직을 앞둔 55세 이상 가구의 52%는 확정기여형 연금이나 개인퇴직계좌 등 아무런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65세 이상 가구의 절반은 사회보장연금이 퇴직 후 주 수입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55세 이상 가구 가운데 어떤 유형으로든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는 나머지 48%의 경우 퇴직연금 중앙값은 10만 9천 달러로 이들이 65세가 되었을 때 물가를 반영하면 매달 405달러 정도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퇴직연금 규모가 큰 가구들일수록 확정급여형 연금 등 여러 가지 퇴직 후 수입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55세 이상 가구의 약 30%는 확정급여형 연금, 개인퇴직연금이 모두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회보장연금이 퇴직자 가구의 가장 주된 수입원으로 65세 이상 가구 평균 수입의 52%를 사회보장연금이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 55세 이상 가구의 퇴직 대비 금융자산 보유 현황

(단위 : %)



자료 :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2015), *Retirement Security: Most Households Approaching Retirement Have Low Savings*, Figure 1: Select Resources for All Households Age 55 and Older.

직장기반 확정급여형 연금도 개인퇴직연금도 없는 가구의 연간소득 중앙값은 18,932달러, 금융자산 중앙값은 1,000달러, 순자산은 34,760달러로 추산된다. 또한 이들 가구의 35%는 대출 없이 자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24%는 자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모기지 대출이 남아 있었으며, 41%는 자택 미소유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 55~64세 은퇴 직전 세대의 퇴직준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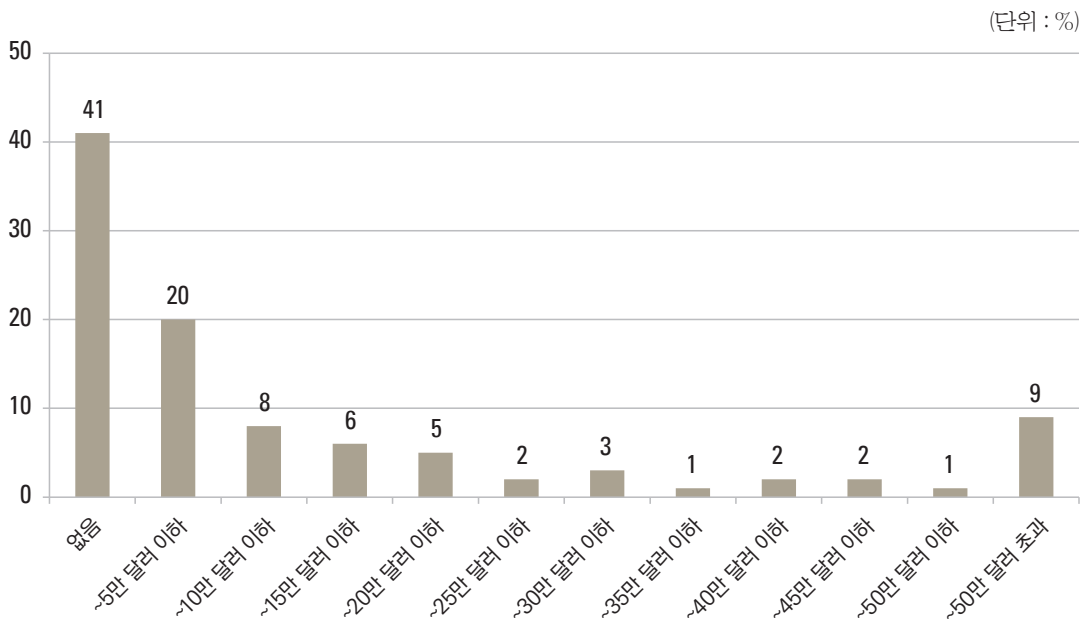
보고서는 세대별로 곧 정년퇴직을 앞둔 세대인 55~64세 가구(이들 가구 구성원 일부는 정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미리 퇴직한 경우도 있으나 대다수는 아직 퇴직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은퇴 직후 세대인 65~74세 가구(마찬가지로 이들 가구 구성원 대다수는 퇴직을 했으나 일부는 정년을 넘어서도 일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5세 이상(이 세대는 거의 대부분 은퇴했다고 가정된다)을 구분해 보다 자세한 분석을 내놓았다. 여기서는 은퇴를 앞둔 55~64세 가구에 한해 그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 개인퇴직연금 미보유 가구(41%)

은퇴 직전 세대의 55%에 해당하는 가구는 25,000달러 미만의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으며, 41%는 아예 퇴직연금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그림 2 참조). 이들 가구 중 일부는 퇴직연금 이외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을 포함, 기타 수입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27%는 아무런 은퇴 대비 재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퇴직연금으로 한정할 경우, 이 연령대 가구의 20%는 1달러 이상 5만 달러 미만의 퇴직연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세부적으로는 1만 달러 미만이 7%, 1만 달러 이상 2만 달러 미만이 5%, 2만 달러 이상 3만 달러 미만이 4%, 3만 달러 이상 4만 달러 미만이 2%, 4만 달러 이상 5만 달러 미만이 3%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퇴직연금 보유 총액이 높아질수록 보유 비율은 점차 줄어 45만 달러 이상 50만 달러 미만을 보유한 가구는 이들 세대의 1%만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퇴직연금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들 41% 가구들은 다른 종류의 금융자산을 거의

[그림 2] 55~64세 가구 퇴직연금 금액별 보유 비율



자료 :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2015), *Retirement Security: Most Households Approaching Retirement Have Low Savings*, Figure 2: Distribution of Retirement Savings Amounts among Households Age 55-64.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동시에 퇴직연금을 보유한 가구들에 비해 부채를 가질 확률도 낮은 것으로도 조사되었다. 예를 들어, 이들 가운데 85%는 은퇴준비와 무관한 투자 또는 예금 등 총 금융자산이 25,000달러 미만이었다. 퇴직연금이 전혀 없는 가구들의 소득 중앙값은 26,000달러로 개인퇴직연금을 보유한 가구들의 소득 중앙값 86,000달러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표 1 참조). 순자산은 중앙값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없는 가구들은 21,000달러로, 퇴직연금 보유 가구들의 중앙값 337,000달러의 약 6.7%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보유율도 적어 32%에 그쳤다. 퇴직연금 미보유 가구의 모기지 대출을 완납한 자택 보유율은 56%, 퇴직연금 보유 가구의 비율은 87%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55~64세 가구 퇴직연금 보유 여부에 따른 자산

(단위 : %, 달러)

	개인퇴직연금 없음	개인퇴직연금 있음
구성비	41	59
순자산(net worth) 중앙값	21,000	337,000
퇴직 관련 이외 금융자산	1,000	25,000
소득 중앙값	26,000	86,000
자택 보유율	56	87
자택 보유율(모기지 완납)	22	27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보유율	32	45

자료 :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2015), *Retirement Security: Most Households Approaching Retirement Have Low Savings*, Table 1: Select Resources for Households Age 55–64 by Ownership of Retirement Savings.

## 개인퇴직연금과 직장기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전부 미보유 가구(27%)

은퇴준비에 가장 취약한 집단은 개인퇴직연금도 직장기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도 없는 27%의 가구들이다. 이들 가구의 순자산 중앙값은 9,000달러이며, 이들 가구의 91%는 25,000달러 미만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가구의 주택 자산 중앙값은 53,000달러에 그쳤으며, 이는 퇴직연금이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보유한 가구의 주택 자산 중앙값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마찬가지로, 이들 가구의 소득 중앙값은 약 21,000달러 수준이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나 개인퇴직연금을 보유한 가구의 82%가 임금소득이 있는 데 비해 이들 가구 가운데 임금소득이 있는 가구는 50%에 그쳤다.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비율이 적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적립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가구의 46%는 사회보장연금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이 있었으며, 이는 정년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사회보장연금을 수급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월 수급액이 축소된 것을 의미한다(70세까지는 수급을 늦출수록 월 수급액이 늘어난다).

## 퇴직연금 보유 가구(59%)

퇴직연금을 소액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의 59%이고, 이들 가구의 개인퇴직연금 적립액 중앙값은 약 104,000달러였으며, 이는 60세 퇴직자 1인 기준 월 수급액으로 환산하면 310달러 수준이다. 퇴직연금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라 하더라도 적립액 편차가 커서, 이들 가운데 15%는 50만 달러 이상의 퇴직연금을 보유하고 있는 데 반해 11%는 25,000달러 미만의 퇴직연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25,000달러는 60세 퇴직자 1인 월 수급액으로 환산하면 74달러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표 2 참조).

〈표 2〉 55~44세 개인 퇴직연금 보유 가구의 금액별 분포

(단위 : 달러)

	10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90분위
개인퇴직연금 중앙값	8,760	25,978	104,340	300,200	718,200

자료 :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2015), *Retirement Security: Most Households Approaching Retirement Have Low Savings*, Table 2: Distribution of Retirement Savings Amounts among Households with Some Retirement Savings, Age 55-64.

## 가구 소득수준별 은퇴 대비 재원 보유 분포

퇴직연금 적립금과 직장기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보유 비율은 가구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은 소득 5분위별 자산 분포를 정리한 것인데, 자택 자산과 관련해 자택 보유율(모기지 완납)과 대출(부채) 총액이 2년치 가구 소득액보다 더 큰 가구 비율은 소득 분위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대로 퇴직연금액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보유율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1/5분위(하위 20%)의 퇴직연금 보유율은 9%에 그친 데 비해 5/5분위(상위 20%)의 보유율은 94%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직장기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가구소득 하위 20%의 경우 18%만이 보유하고 있는 데 비해, 상위 20%의 경우에는 50%가 보유하고 있다.

<표 3> 55~44세 가구 소득분위별 자산 분포

(단위 : %,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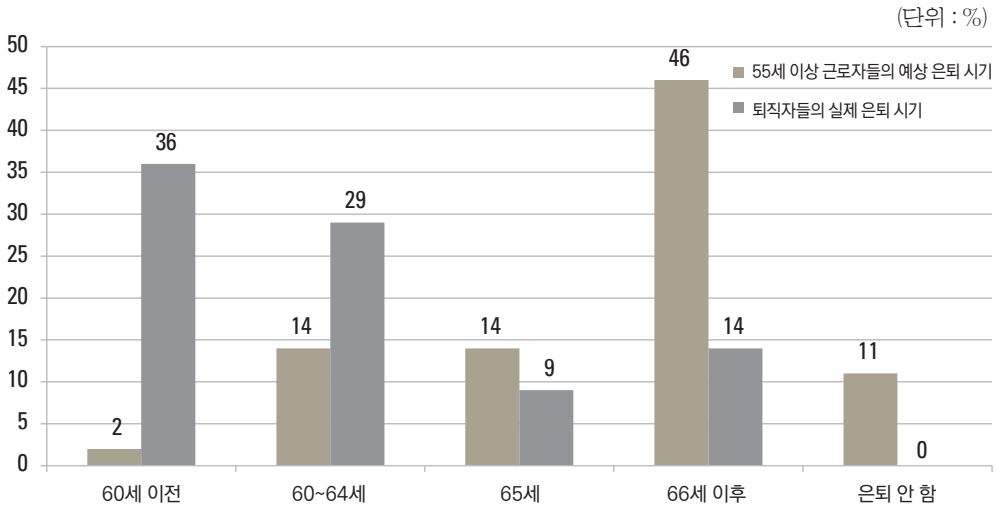
	1(하위)	2	3	4	5(상위)
개인퇴직연금 보유율	9	42	68	84	94
개인퇴직연금 보유 가구 중, 연금 총액 중앙값	-	19,000	68,000	97,000	371,000
직장기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보유율	18	35	43	53	50
자택 보유율(모기지 완납)	21	28	24	25	29
대출(부채)이 2년치 소득액보다 큰 가구 비율	17	26	24	21	14

자료 :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2015), *Retirement Security: Most Households Approaching Retirement Have Low Savings*, Table 3: Select Retirement Resources for Households Age 55-64 by Income Quintile.

## ■ 은퇴 직전 세대인 55세 이상 근로자들, 향후 소득 과대평가

설문조사 결과, 은퇴 직전 세대인 55세 이상 근로자들은 자신의 향후 소득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직 은퇴를 하지 않은 이들 세대 근로자들이 실제로 본인의 계획대로 더 오랜 기간 일을 하고 나중에 은퇴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이 현실적이지 않거나 은퇴 계획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들의 은퇴 후 재정적 안정성은 크게 위협하게 된다. 근로자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몇 해 빨리 은퇴하게 되면 그만큼 은퇴를 대비한 연금을

[그림 3] 55세 이상 근로자들의 은퇴 예상 시기 및 퇴직자들의 실제 은퇴 시기



자료 :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2015), *Retirement Security: Most Households Approaching Retirement Have Low Savings*, Figure 5: When Older Workers Plan to Retire Versus When Retirees Actually Retired.

적립할 시간도 줄기 때문이다.

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EBRI)가 2015년 실시한 은퇴설계조사(Retirement Confidence Survey) 결과, 55세 이상 근로자들의 절반 정도는 66세 또는 이후에 은퇴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현재 이미 은퇴한 퇴직자들 가운데 66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는 14%에 불과했다(그림 3 참조). 60세 이전에 퇴직할 계획인 55세 이상 현직 근로자들은 단지 2%에 불과했으나, 실제로 60세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은 무려 36%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더 늦게 퇴직하겠다는 계획을 가진 응답자일수록 퇴직연금에 자신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갤럽조사에서 베이비부머 세대 가운데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이 있다’라는 문항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들은 73세에 퇴직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비해 이 문항에 많이 동의한다는 응답자들은 66세에 퇴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년 계리사 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가구 소득에 따라 계획한 은퇴 시기가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고령까지 일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KLI**